

우리나라 有配偶婦人の 人工妊娠中絶에 關한 研究

吳 英 姬

(韓國人口保健研究院)

<目 次>	
I. 緒 論	III. 研究結果 및 考察
II. 研究方法	IV. 結 論

I. 緒 論

1. 研究의 背景

한 國家의 人口成長에 影響을 주는 여러가지 人口學的 變數들 中에서 가장 基本이 되는 要因으로서 飢餓, 出産力, 瘧疾, 死亡力 그리고 世帯, 人口移動을 들 수 있다.¹⁾

우리나라는 人口政策의 目的 中에서 人口增加抑制을 最優先의 推進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세가지 要素 中 出産力 要因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다. 왜냐하면 死亡力에 關하여서는 年齡構造上의 增減要因과 人口外의 要因, 즉 生活水準의 向上이나 保健·醫療의 普及 등에 의한 減少 要因 등이 있겠지만 급격한 變化를 期待할 수가 없으며, 國家間의 人口移動 역시 그 規模 自體가 아주 작고 그 變化를 豫測하기 힘들다. 반면 出産率의 變動은 지금까지 人口變動을 主導해 왔을 뿐 아니라 아직도 그 變動의 餘地가 많기 때문이다.²⁾

1960年 以後 지난 20餘年에 걸친 우리나라의 出産力 低下에 미친 주요 要因은 避妊實踐率의 增大, 初婚年齡의 上昇 그리고 人工妊娠中絶의 擴散 등으로 分析되고 있다.³⁾

1980年代에 이르러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認識의 變化와 效率的인 避妊受容의 增加로 人工妊娠中絶의 增加勢가 점차 減少趨勢를 나타내고 있어 母性健康維持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人口資質 및 社會的 側面에서 좋은 影響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⁴⁾

願하지 않는 出産을 防止한다는 觀點에서만 본다면 人工妊娠中絶과 避妊은 同一한 目的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人工妊娠中絶의 經驗과 避妊受容의 程度는 높은 相關關係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⁵⁾

有配偶婦人の 人工妊娠中絶率은 해마다 增加하여 1976年에 37.5퍼센트⁶⁾, 1978年에 47.9퍼센트⁷⁾, 1982年에 49.7퍼센트⁸⁾이며 그리고 1985年에는 53.2퍼센트에⁹⁾ 이르렀다.

그러나 合計人工妊娠中絶率은 1975年에 2.3⁶⁾, 1978年에 2.9⁷⁾로 增加했다가 1978年을 고비로 점차 減少하여 1981年에 2.7⁸⁾, 1984年에 2.1⁹⁾로 減少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人工妊娠中絶을 構造的인 側面에서 살펴보면 反復人工妊娠中絶率은 1976年에 22.0퍼센트, 1978年에 29.7퍼센트, 1982年에 29.9퍼센트¹⁰⁾로 增加했다가 1985년에는 27.6퍼센트로 減少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合計人工妊娠中絶率이나 反復人工妊娠中絶率의 減少趨勢現象은 婦人들의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否定的인 意識이 高潮되고 出産調節을 避妊에 依存하는 傾向이 높아진데 緣由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¹⁰⁾

本 研究에서는 우리나라 有配偶婦人들의 人口·社會學的 特性에 따라 어느 程度의 人工妊娠中絶을 經驗하고 있는지를 把握하고자 한다.

2. 研究의 目的

本 研究의 一般的 目的은 人工妊娠中絶 實態를 把握하는데 있으며, 이에 따른 具體的 目的

을 設定하였다.

첫째, 婦人의 人口·社會學的 特性別로 人工 妊娠中絶 經驗率을 把握하고,

둘째, 人工妊娠中絶에 關한 一般事項을 살펴 보며,

셋째, 人工妊娠中絶이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1. 研究資料 및 研究對象

本 研究에 使用된 資料는 「1985年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의 資料이다. 이 調査는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의 主管으로 1985年 5月 2일부터 6月 9일까지 調査된 標本調査이며, 選定된 家口에 대한 家庭訪問을 통하여 調査員에 의해 面接調査 되었다.

이 調査에 使用된 調査票는 2종류인데 (1) 調査區內의 一般家口를 對象으로 각 家口에 대한 家口一般事項과 死亡 및 出生에 關한 事項 등을 調査하는 家口調査票와 (2) 그 調査區內에 상주하고 있는 15~49歲 既婚婦人에게 자신의 一般特性和 家族計劃實態, 子女觀 그리고 出産과 直結되는 妊娠·出産·避妊 등에 關한 事項을 묻는 婦人調査票이다.

이들 中에서 本 研究에서는 婦人調査票에 있는 15~44歲 有配偶婦人에 關한 資料를 使用하였다.

2. 分析方法

人工妊娠中絶 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分析하였다.

첫째, 人口·社會學的 特性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에서는 婦人의 年齡·教育程度·初婚年齡·現存子女數·就業狀態·宗教에 따라서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이 어떻게 다른가를 百分率로 살펴 보았으며, 年齡別·教育程度別 經驗率에서는 韓國人口保健研究院에서 實施한 1978年, 1982年 調査結果와 比較하였다. 本 研究에서는 2회 以上の 人工妊娠中絶 經驗이 있는 婦人을 反復 人工妊娠中絶者로 規定하였다.

둘째, 人工妊娠中絶에 關한 一般事項에서는

人工妊娠中絶 經驗回數에 따라 無經驗者·初回 經驗者·反復經驗者로 나누어 人工妊娠中絶의 理由 程度, 첫번째 人工妊娠中絶 理由 그리고 避妊實踐狀態 등을 살펴 보았다.

셋째, 人工妊娠中絶이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기 위하여 重回歸分析을 試圖하였으며, 이 分析에 使用된 變數는 다음과 같다.

가. 被說明變數

① 現存子女數: 어떤 要因이 出産力 決定에 어느 程度의 影響을 주고있는지를 測定해 보기 위해서는 出産完了된 婦人의 出産力을 被說明變數로 하여야 보다 適切한 分析이 되겠지만 資料의 制約으로 調査 당시의 各 婦人의 現存子女數를 被說明變數로 하였다.

나. 說明變數

① 年齡: 婦人의 滿年齡을 實數로 使用하였다.

② 初婚年齡: 婦人의 初婚年齡을 實數로 使用하였다.

③ 教育程度: 教育程度는 婦人이 教育받은 年數를 實數로 使用하였다.

④ 理想子女數: 理想子女數를 實數로 使用하였다.

⑤ 現就業狀態: 現業者와 非業者로 區分하였다.

⑥ 宗教: 宗教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區分하였다.

⑦ 人工妊娠中絶數: 人工妊娠中絶 經驗回數를 實數로 使用하였다.

⑧ 總妊娠數: 妊娠回數를 實數로 使用하였다.

III. 研究結果 및 考察

1. 人口·社會學的 特性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

(1) 年齡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

年齡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은 各 年齡別로 대체로 增加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表 1 參照).

初回人工妊娠中絶率은 30~34歲 年齡層이 31.1 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反復經驗率은 年齡이 높아질수록 增加하여 40~44歲 年齡層이 42.5 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平均人工妊娠中絶數를 살펴 보면 25~29歲가

Table 1. Percent of First and Repeated Abortion Experience by Age

年齡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

Age	Interviewee	Total	First	Repeated
15~19	19	5.4	5.4	—
20~24	723	22.7	17.5	5.2
25~29	2,003	43.0	24.7	18.3
30~34	1,692	61.5	31.1	30.4
35~39	1,371	62.8	25.8	37.0
40~44	1,202	66.5	24.0	42.5
Total	7,010	53.1	25.5	27.6

0.7회, 30~34歲가 1.2회로 두集團의 差異가 가장 컸으며, 35~39歲는 1.5회로 나타나서 이 年齡層부터 經驗回數가 減少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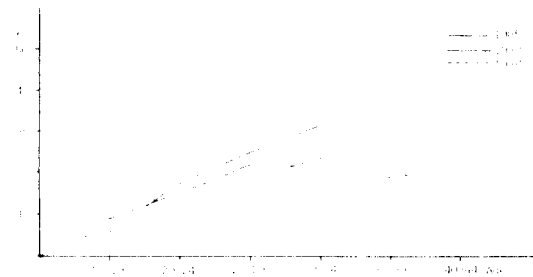
年度別 婦人年齡에 따른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은 初回の 경우 15~19歲 年齡層에서는 계속 減少하고 있으며, 20歲 以上の 年齡層에서는 增加하고 있었다(圖 1 參照). 反復經驗率은 20代 年齡層은 增加된 반면 30歲 以上の 年齡層에서는 減少하고 있다(圖 2 參照). 反復經驗者의 年齡이 漸次的으로 낮아져 30代 年齡層에서 20代 年齡層으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20代 젊은 婦人層에 대하여 效果的인 避妊方法으로 避妊實踐을 誘導하여야 한다.

(2) 教育程度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

教育程度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을 살펴보면

Fig. 1. Trend in Percent of First Abortion Experience by Age: 1978~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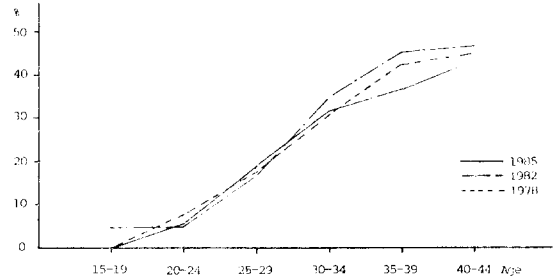
年度別 年齡別 初回人工妊娠中絶 經驗率



Source: 1978: Jotajawa Hyun, et al., op. cit., 1979.
 1982: Hyun Sang Moon, et al., op. cit., 1982.
 1985: Hyun Sang Moon, et al., op. cit., 1985.

Fig. 2. Trend in Percent of Repeated Abortion Experience by Age: 1978~1985

年度別 年齡別 反復人工妊娠中絶 經驗率



Source: 1978: Jotajawa Hyun, et al., op. cit., 1979.
 1982: Hyun Sang Moon, et al., op. cit., 1982.
 1985: Hyun Sang Moon, et al., op. cit., 1985.

初回人工妊娠中絶率은 高卒이 26.8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大學 以上이 23.3퍼센트로 가장 낮게 나타나서 差異를 보이지 못하였다. 反復經驗率은 無學者가 33.8퍼센트, 中卒이 27.1퍼센트 그리고 大學 以上이 24.3퍼센트로 나타나서 教育程度別로 一貫性있는 差異를 보여주고 있지만 큰 差異는 나타나지 않았다(表 2 參照).

平均人工妊娠中絶數를 教育程度別로 比較하여 보면 無學者가 1.5회, 國卒이 1.3회, 中卒이 1.1회, 高卒이 1.0회 그리고 大學 以上이 0.9회로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人工妊娠中絶의 回數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年度別 教育程度에 따른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은 初回の 경우 1978년에 大學 以上이 29.2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1982년과 1985년에는 高卒이 각각 21.4퍼센트, 26.8퍼센트로 가장 높았다(圖 3 參照). 反復經驗率의 變動趨勢를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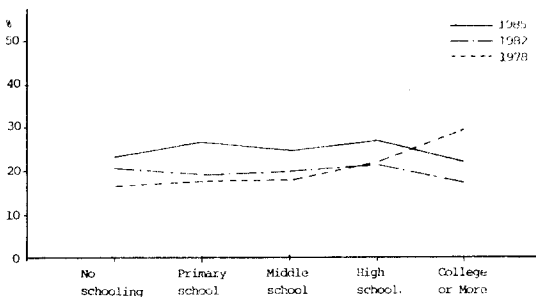
Table 2. Percent of First and Repeated Abortion Experience by Education Level

教育程度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

Education Level	Interviewee	Total	First	Repeated
No Schooling	203	57.0	23.2	33.8
Primary School	1,993	57.9	26.5	31.4
Middle School	2,337	51.6	24.5	27.1
High School	2,021	51.2	26.8	24.4
College or higher	454	46.6	22.3	24.3
Total	7,008	53.2	25.6	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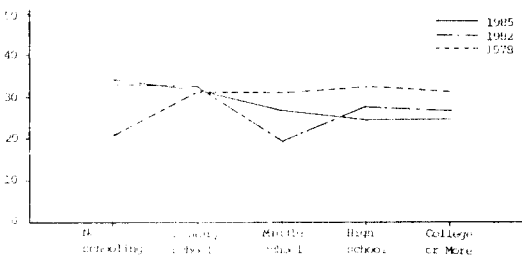
면 高卒과 大學 以上은 조금씩 계속 減少하였고, 無學者의 反復經驗率은 增加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圖 4 參照).

Fig. 3. Trend in Percent of First Abortion Experience by Education Level: 1978~1985
 年度別 教育程度別 初回人工妊娠中絶 經驗率



Source: 1978: Jong Ilw Byun, et al., op. cit., 1979.
 1982: Hyun Sang Moon, et al., op. cit., 1982.
 1985: Hyun Sang Moon, et al., op. cit., 1985.

Fig. 4. Trend in Percent of Repeated Abortion Experience by Education Level: 1978~1985
 年度別 教育程度別 反復人工妊娠中絶 經驗率



Source: 1978: Jong Ilw Byun, et al., op. cit., 1979.
 1982: Hyun Sang Moon, et al., op. cit., 1982.
 1985: Hyun Sang Moon, et al., op. cit., 1985.

(3) 初婚年齡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

初婚年齡別로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을 살펴보면 初婚年齡이 높아질수록 人工妊娠中絶率이 낮

Table 3. Percent of First and Repeated Abortion Experience by Age at First Marriage
 初婚年齡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

Age at First Marriage	Interviewee Total	First (%)	Repeated (%)
Less than 19	1,201	61.3	24.3
20~24	4,649	53.0	26.1
25~29	1,114	46.1	24.9
More than 30	46	28.8	13.7
Total	7,010	53.1	25.5

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表 3 參照).

初回人工妊娠中絶率은 初婚年齡이 30歲 未滿인 群에서는 年齡別로 큰 差異가 없었으나 初婚年齡이 30歲 以上인 群은 13.7퍼센트로 다른 年齡群에 比하여 매우 낮게 나타났다. 反復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은 初婚年齡 19歲 以下가 37.0퍼센트로 가장 높고, 20~24歲가 26.9퍼센트, 25~29歲가 21.2퍼센트, 30歲 以上이 15.1퍼센트로 나타나서 初婚年齡에 따라 큰 差異를 보였다.

이것은 初婚年齡과 出産力 間의 相關關係를 觀察한 研究에서와 같이 結婚을 늦게한 婦人일수록 結婚期間이 짧아서 出産力이 낮아진다¹¹⁾는 結果와 一致하여 初婚年齡이 높을수록 人工妊娠中絶 經驗率도 낮아진다. 平均人工妊娠中絶數를 初婚年齡別로 살펴보면 初婚年齡이 19歲 以下일 때 1.5回, 20~24歲가 1.1回, 25~29歲가 0.9回, 30歲 以上이 0.6回로 初婚年齡이 높을수록 人工妊娠中絶의 回數는 적었다.

(4) 現存子女數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

現存子女數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은 子女數가 3名일때 初回經驗率이 30.1퍼센트, 反復經驗率이 35.5퍼센트로 總人工妊娠中絶率이 65.6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表 4 參照). 이 結果는 티체(C. Tietze)에 의한 研究結果인 人工妊娠中絶이 平均 子女數가 約 2.5名 程度에서 最高水準에 達하고, 그 以後에는 서서히 低下하게 된다¹²⁾는 事實과 비슷한 樣相을 띠고 있다.

平均人工妊娠中絶數를 現存子女數別로 살펴보

Table 4. Percent of First and Repeated Abortion Experience by Number of the Living Children of Women
 現存子女數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

Number of Living Children	Interviewee Total	First (%)	Repeated (%)
0	511	12.1	7.4
1	1,296	33.2	21.4
2	2,498	60.6	29.7
3	1,668	65.6	30.1
4	681	62.1	22.1
5+	356	56.5	22.5
Total	7,010	53.1	25.5

Table 5. Percent of First and Repeated Abortion Experience by Pattern of Work
 就業狀態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

Pattern of Work	Interviewee	Total	First	Repeated
Employed since Marriage	243	50.7	22.1	28.6
Left at Marriage	2,509	45.4	25.7	19.7
Left after Marriage	370	52.3	28.4	23.9
Left at Marriage & Reemployed	391	66.3	30.9	35.4
Left after Marriage & Reemployed	93	64.2	17.3	46.9
Never Employed	3,395	57.4	25.1	32.3
Total	7,002	53.2	25.6	27.6

면 子女가 1名일때 0.5회, 2名이 1.2회, 3名이 1.5회, 4名이 1.7회로 子女가 2名일때 급격한 增加를 보였다.

(5) 就業狀態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

就業狀態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을 살펴보면 初回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은 結婚前 就業을 中斷했다가 結婚後 再就業한 群이 30.9퍼센트로 가장 높으며, 反復經驗率은 結婚後 就業을 中斷했다가 再就業한 群이 46.9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表 5 參照).

再就業者의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이 높은 것은 婦人들이 經濟活動과 多子女養育을 兩立하기 어려우므로 願하지 않는 妊娠을 人工妊娠中絶로 終結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結婚前부터 現在까지 繼續 就業中인 群은 67퍼센트가 高卒 以上の 學歷을 가지고 있어⁹⁾ 學歷이 높을수록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이 낮음을 보이고 있다.

(6) 宗教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

宗教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을 살펴보면 初回 經驗率은 天主教群이 28.4퍼센트로 가장 높고 反復經驗率은 其他群이 33.9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表 6 參照). 이미 既存의 研究結果에서⁹⁾처럼 우리나라에서 宗教는 出産行態에 별다른 影響을 미치지 못하여 宗教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은 큰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宗教를 가진 婦人들이 宗教를 가지지 않은 婦人보다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人工妊娠中絶을 禁止하고 있는 天主教群의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이 57.1퍼센트로 가장

Table 6. Percent of First and Repeated Abortion Experience by Religion Identification
 宗教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

Religion	Interviewee	Total	First	Repeated
None	2,999	50.8	26.1	24.7
Buddhist	2,123	56.0	26.0	30.0
Protestant	1,342	52.3	22.9	29.4
Catholic	489	57.1	28.4	28.7
Others	55	53.5	19.6	33.9
Total	7,007	53.2	25.6	27.6

높은 것은 興味있는 事實이다.

2. 人工妊娠中絶에 關한 一般事項

(1) 人工妊娠中絶 回數

15~44歲 有配偶婦人들이 經驗하고 있는 人工妊娠中絶 回數를 보면 25.6퍼센트가 1회, 13.4퍼센트가 2회, 7.3퍼센트가 3회, 3.1퍼센트가 4회 그리고 3.8퍼센트가 5회 以上の 人工妊娠中絶을 經驗한 것으로 나타났다(表 7 參照).

1982年 結果와 比較하면 1회 經驗者는 5.7퍼센트 포인트가 增加하였고 2회 以上の 經驗者는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不妊施術을 包含한 避妊實踐率의 增加에 起因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 人工妊娠中絶에 對한 態度

人工妊娠中絶의 해로움 程度에 對하여 無經驗者는 31.3퍼센트가 '매우 해롭다', 57.8퍼센트가 '해롭다'고 應答하였으며, 初回經驗者는 33.4퍼센트가 '매우 해롭다', 53.3퍼센트가 '해롭다'

Table 7. Percent Distribution of the women by the Frequency of Abortion
人工妊娠中絶 回数

Number of times	1985		1982 %
	Interviewee	%	
None	3,283	46.8	50.4
1	1,792	25.6	19.9
2	942	13.4	14.0
3	511	7.3	7.8
4	214	3.1	3.3
5 ⁺	268	3.8	4.6
Total	7,010	100.0	100.0

고 應答하였다. 反復經驗者中에서는 42.2퍼센트가 ‘매우 해롭다’, 49.1퍼센트가 ‘해롭다’고 應答하여, 人工妊娠中絶經驗回數가 많을수록 人工妊娠中絶이 해로운 것으로 認識하는 傾向이 있음을 알 수 있다(表 8 參照).

이와 같이 反復經驗者의 보다 강한 否定的 態度는 避妊을 效率的으로 實踐하지 않음으로써 惹起된 妊娠을 反復的인 人工妊娠中絶의 形態로 쉽게 終結짓고 있는 것으로, 이 過程에서 人工妊娠中絶의 해로움을 實際로 體驗하였기 때문에 上記 反應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3) 人工妊娠中絶 理由

첫번째 人工妊娠中絶 理由에 대하여 初回經驗者는 子女不願이 64.8퍼센트, 避妊調節이 11.9

Table 8. Percent Distribution of the Attitude toward Abortion by the Frequency of Abortion

Attitude toward Abortion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態度 (Unit: %)			
	None	First	Repeated	Total
Very harmful	33.1	33.4	42.2	34.8
Harmful	57.8	53.3	49.1	54.3
Not harmful	2.3	5.8	4.3	3.7
Never harmful	0.1	0.2	0.2	0.1
According to cases	1.6	4.7	2.3	2.6
Don't know	6.8	2.7	2.0	4.4
Total	100.0	100.0	100.0	100.0
(N)	(3,284)	(1,791)	(1,935)	(7,010)

퍼센트, 其他 理由가 23.3퍼센트이고, 反復經驗者는 子女不願이 58.1퍼센트, 避妊調節이 18.1퍼센트, 其他理由가 23.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初回經驗者는 子女不願이 6.7퍼센트 포인트 높았으며, 反復經驗者는 避妊調節이 6.2퍼센트 포인트 높았다(表 9 參照). 두 集團 모두 子女不願이나 避妊調節의 理由가 7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므로, 不願妊娠을 事前에 豫防할 수 있도록 效果的인 避妊서비스의 對策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反復經驗者의 첫번째 人工妊娠中絶 理由의 7.3퍼센트가 婚前妊娠으로 나타났으므로 結婚을 앞둔 未婚女에 대한 保健教育 및 性教育의 必要性이 要求된다.

Table 9. The Reasons of First Induced Abortion
人工妊娠中絶 理由 (Unit: %)

Reason of Abortion	Total	First	Repeated
Unwanted Child	61.3	64.8	58.1
Interval Control	15.1	11.9	18.1
For Health	4.6	5.2	4.0
Fetus Abnormal	2.7	4.1	1.4
Illegitimacy	5.7	3.9	7.3
Difficulty	3.5	2.3	4.6
Home Problem	1.9	1.4	2.5
Others	5.1	6.4	4.0
Total	100.0	100.0	100.0
(N)	(3,724)	(1,788)	(1,935)

(4) 避妊實踐狀態

現在 避妊實踐狀態를 比較해 보면 無經驗者는 56.6퍼센트, 初回經驗者는 79.7퍼센트 그리고 反復經驗者는 85.3퍼센트의 實踐率을 보였다(表 10 參照).

反復人工妊娠中絶 經驗者의 避妊實踐率이 가장 높은 것은 대체로 이들이 年齡이 높아 願하는 子女를 낳은 후 斷産하려고 하는 理由에서 일 수도 있고, 또한 이들이 人工妊娠中絶의 해로움을 잘 아는 까닭에 더 以上의 反復的인 人工妊娠中絶을 避하기 위하여 避妊實踐을 하는 것으로도 解釋할 수 있다.

Table 10. Percent Distribution of the Women by Their Status of Contraception Used

人工妊娠中絶 経験様相에 따른 現避妊實踐 狀態 (Unit: %)

Status of Contraception	Total	None	First	Repeated
Currently using	70.4	56.6	79.7	85.3
Ever used but not currently using	13.2	14.8	12.3	11.5
Never used	16.3	28.6	8.0	3.1
Total (N)	100.0 (7,010)	100.0 (3,284)	100.0 (1,791)	100.0 (193.3)

3. 人工妊娠中絶이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

(1) 回歸分析(Regression Analysis)

出産力에 대해서 人工妊娠中絶이 어느 程度의 影響력을 갖는가를 分析하기 위하여 婦人의 現存子女數를 從屬變數로 하고, 이를 說明하는 獨立變數로서 年齡, 初婚年齡, 教育程度, 理想子女數, 就業狀態, 宗教, 人工妊娠中絶數 그리고 總妊娠數 등을 使用하여 回歸分析을 하였다.

相關係數行列表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回歸分析模型에서 獨立變數로 使用될 각 變數들의 相關關係는 대체로 낮은 水準을 維持하고 있으며, 相關係數들의 부호도 一般的으로 豫想할 수 있는 부호와 一致한다(表 11 參照).

回歸分析 方法으로는 普通最小自乘(ordinary least squares(OLS)) 推定法을 使用하여 分析을 試圖하였다.

出産力에 대한 分析模型으로 重線型回歸模型을 假定해 보면 다음과 같다.

$$Y = \text{Constant} + \alpha_1 X_1 + \alpha_2 X_2 + \alpha_3 X_3 + \alpha_4 X_4 + \alpha_5 X_5 + \alpha_6 X_6 + \alpha_7 X_7 + \alpha_8 X_8$$

- Y : Fertility (Number of living children)
- X₁ : Age
- X₂ : Age at first marriage
- X₃ : Education level
- X₄ : Ideal number of children
- X₅ : Pattern of work (Dummy variable)
- X₆ : Religion (Dummy variable)
- X₇ : Number of induced abortion
- X₈ : Number of pergnacy

現就業狀態(X₅)는 非就業者인 경우 “0”, 現就業者인 경우 “1”, 宗教(X₆)는 宗教가 없는 경우 “0”, 宗教가 있는 경우 “1”로 하였을때 回歸方程式의 推定結果는 다음과 같다.

$$Y = 0.37 + 0.06X_1 - 0.06X_2 - 0.02X_3 + 0.07X_4 - 0.04X_5 - 0.03X_6 - 0.49X_7 + 0.49X_8$$

(2562.2) (1456.8) (358.5) (46.9)
(41.0) (4.6) (4.5) (3226.5)
(4781.9)

$$\left\{ \begin{array}{l} R^2 = 0.745 \\ () : \text{F-Ratio} \end{array} \right.$$

出産力에 年齡, 理想子女數, 總妊娠數는 “正”의 關係를 나타내고, 初婚年齡, 教育程度, 就業狀態, 宗教, 人工妊娠中絶 등은 “負”의 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以上の 結果에서 人工妊娠中絶의 回歸係數가 -0.49인 것을 볼 때 人工妊娠中絶이 出産力에

Table 11.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Independent Variables with Fertility

相關係數行列表

	X ₁	X ₂	X ₃	X ₄	X ₇	X ₈	Zero-Order Correlation Coefficient for Fertility
X ₁	1.00000						0.65924
X ₂	0.03949	1.00000					-0.31703
X ₃	-0.26785	0.36413	1.00000				-0.39263
X ₄	0.16252	-0.11096	-0.16591	1.00000			0.24233
X ₇	0.29259	-0.15274	-0.08785	0.05607	1.00000		0.22805
X ₈	0.55949	-0.29207	-0.28280	0.17842	0.79080	1.00000	0.66446

* Significance levels of all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re under 0.001

크게 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經路分析(Path Analysis)

回歸分析의 結果를 利用하여 각 人口·社會學的 變數들이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을 全體의 으로 把握하기 위하여 Path 模型을 設定하였다. 이 分析에 使用된 Path 係數는 回歸方程式의 標準化된 回歸係數이다.

① 人口·社會學的 變數와 總妊娠數, 그리고 人工妊娠中絶數 등을 獨立變數로 하고 出産力을 從屬變數로 하여 Path 係數를 推定하기 위한 回歸分析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Y &= 0.32X_1 - 0.13X_2 - 0.05X_3 \\
 &\quad (2562.5) \quad (1456.8) \quad (358.2) \quad (46.9) \\
 &\quad + 0.04X_4 - 0.01X_5 - 0.01X_6 - 0.61X_7 \\
 &\quad \quad (41.0) \quad (4.6) \quad (4.5) \quad (3226.5) \\
 &\quad + 0.91X_8 \\
 &\quad (4781.9)
 \end{aligned}$$

$$\left. \begin{aligned}
 R^2 &= 0.746 \\
 (\quad) &: \text{F-Ratio}
 \end{aligned} \right\}$$

② 人口·社會學的 變數와 總妊娠數를 獨立變數로 하고 人工妊娠中絶數를 從屬變數로 하여 推定한 回歸分析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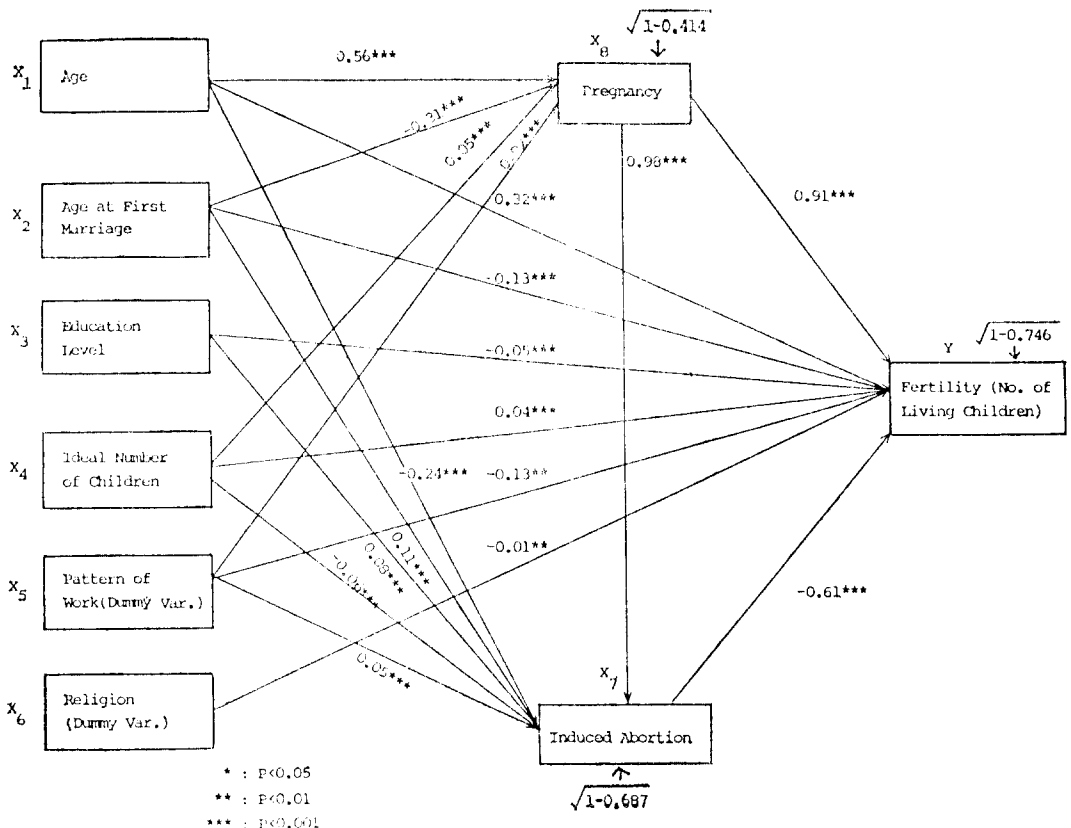
$$\begin{aligned}
 X_7 &= -0.24X_1 + 0.11X_2 + 0.08X_3 - 0.06X_4 \\
 &\quad (2556.8) \quad (767.8) \quad (207.4) \quad (113.7) \quad (68.7) \\
 &\quad + 0.05X_5 + 0.98X_8 \\
 &\quad \quad (57.5) \quad (12649.4)
 \end{aligned}$$

$$\left. \begin{aligned}
 R^2 &= 0.687 \\
 (\quad) &: \text{F-Ratio}
 \end{aligned} \right\}$$

③ 人口·社會學的 變數를 獨立變數로 하고 總妊娠數를 從屬變數로 하여 推定한 回歸分析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X_8 &= 0.56X_1 - 0.31X_2 + 0.05X_4 + 0.02X_5 \\
 &\quad (1239.4) \quad (3527.4) \quad (1104.7) \quad (31.7) \quad (3.0)
 \end{aligned}$$

Fig. 5. Path Model of Factors Affecting Fertility
經路分析結果



$$\left\{ \begin{array}{l} R^2=0.414 \\ () : F\text{-Ratio} \end{array} \right.$$

위의 結果들을 綜合하여 Path Model을 만들면 다음과 같다(圖 5 參照).

人口·社會學的 變數들이 出産力에 미치는 直接的 影響이나 總妊娠數와 人工妊娠中絶數 등을 媒介로 하여 出産力에 미치는 間接的 影響을 모두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表 12 參照).

以上の 結果에 의하면 人口·社會學的 要因은 人工妊娠中絶 行態에 크게 影響力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總妊娠回數의 標準化 係數가 0.98으로서 人工妊娠中絶에 대하여 높은 影響力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總妊娠에 대해서는 年齡이 0.56, 初婚年齡이 -0.31, 理想子女數가 0.05 그리고 就業狀態가 0.02으로 年齡이 가장 높은 影響力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教育程度와 宗教는 有意的인 變數가 되지 못하였다.

人口·社會學的 變數들이 直接的으로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과 總妊娠이나 人工妊娠中絶을 통해 間接的으로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은 그 크기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出産力 要因에 作用하는 效果로서 年齡要因이 直接的 作用과 間接的 作用이 합쳐져서 0.64로 가장 크게 作用하고 있지만, 初婚年齡, 教育水準, 就業狀態, 理想子女數 그리고 宗教 등의 變數보다는 人工妊娠中絶이 出産力을 說明하는데 有意的인 變數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人工妊娠中絶이 出産調節 側面에서 상당한 寄與度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12. The Effects of Variables on Fertility
獨立變數들이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X ₁	0.32	0.32	0.64
X ₂	-0.13	-0.17	-0.30
X ₃	-0.05	-0.05	-0.10
X ₄	0.04	-0.06	-0.02
X ₅	-0.13	-0.002	-0.13
X ₆	-0.01	—	-0.01
X ₇	-0.61	—	-0.61
X ₈	0.91	-0.60	0.31

그러나 人工妊娠中絶은 母性健康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的 側面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不願妊娠을 事前에 豫防할 수 있도록 持續的인 保健教育이나 家族計劃事業의 弘化로 效率的인 避妊實踐을 誘導해야 할 것이다.

IV. 結 論

全國 15~44歲 有配偶婦人을 對象으로 한 人工妊娠中絶實態에 관한 研究에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1985年 15~44歲 有配偶婦人의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은 53.2퍼센트였고, 이 中 初回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은 25.5퍼센트, 反復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은 27.6퍼센트이었다.

2. 年齡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은 各 年齡別로 대체로 增加하는 傾向을 보였다. 初回經驗率은 30~34歲 年齡層이 31.1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反復經驗率은 年齡이 높아질수록 增加하였다.

3. 教育程度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에서 初回經驗率은 高卒이 26.8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大學 以上이 22.3퍼센트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教育程度別로는 差異를 보이지 못하였다. 反復經驗率은 無學者가 33.8퍼센트, 中卒이 27.1퍼센트이고 大學 以上이 24.3퍼센트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므로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으나 큰 差異는 나타나지 않았다.

4. 初婚年齡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은 初婚年齡이 높아질수록 經驗率이 낮아지는 傾向을 보였다. 平均 人工妊娠中絶數는 初婚年齡이 19歲 以上일 때 1.5回, 20~24歲가 1.1回, 25~29歲가 0.9回, 그리고 30歲 以上이 0.6回로 初婚年齡이 낮을수록 人工妊娠中絶數가 많았다.

5. 現存子女數別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은 子女가 1名일 때 33.2퍼센트, 3名일 때 65.6퍼센트 그리고 5名 以上일 때 56.5퍼센트로 子女가 3名 일때 가장 높았다.

6. 人工妊娠中絶의 해로움 程度에 대하여 初回人工妊娠中絶 經驗者는 86.7퍼센트, 反復經驗者는 91.3퍼센트가 해롭다고 應答하여 反復經驗者가 더 否定的 態度를 보였다.

7. 人工妊娠中絶이 出産力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하기 위하여 年齡, 初婚年齡, 教育程度, 理想子女數, 就業狀態, 宗教, 人工妊娠中絶數 그리고 總妊娠數등을 獨立變數로 하고, 現存子女數를 종속變數로 하여 回歸分析을 하였으며, 그 結果에서 얻어진 人工妊娠中絶의 標準化回歸係數는 -0.61 이었다. 그러므로 人工妊娠中絶이 出産調節 側面에서 상당한 寄與度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人工妊娠中絶은 母性健康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的 側面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不願妊娠을 事前에 豫防할 수 있도록 持續的인 保健教育이나 家族計劃事業의 強化로 效率的인 避妊實踐을 誘導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李時伯, “修正人口 目標樹立과 目標達成을 위한 人口學的 接近方案” 가족계획사업평가대회 보고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2000년을 향한 國家長期發展 構想(人口 및 保健醫療部門), 1985.
- 趙南勳, 李任田, “最近의 家族計劃實態와 展望”, 韓國人口學會誌, V8-1, 1985.
- 林鍾權, “韓國의 人工妊娠中絶實態 考察”, 인구보건논집 제 4 권 2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4.
- “World Abortion Trends”, *Population Crisis Committee*, No. 9. Apr. 1979.
- Park, Byung Tae et al., *The 1976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Evaluation Survey*, Seoul, 가족계획연구원, 1978.
- Byun Jong Hwa, and Koh Kap Suk, *1978 Family Planning and Fertility Survey*, Seoul, 가족계획연구원, 1979.
- Moon Hyun Sang, et al., *1982 National Family Health Survey*, Seoul,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 文顯相, 1985年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보고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 林蓮雨, 孔之權, “反復人工妊娠中絶의 變動趨勢에 관한 考察”, 인구보건논집, 제 5 권 2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 李興卓, 韓大愚, 初婚年齡과 出産力間의 相關關係에 관한 研究, 가족계획연구원, 1978.
- Christopher Tietze, “Pregnancy Rate and Birth Rates”, *Population Studies*, 16:3-37, 1962.
- Robert H. Weller, “Wife’s Employment and Accumulative Family Size in the United States, 1970 and 1960”, *Demography*, Vol. 14, No. 1, February, 1977.
- 文顯相, 出産力에 影響을 주는 要因分析, 가족계획연구원, 1973.
- 韓聖鉉, 人工妊娠中絶에 관한 研究, 가족계획연구원, 1981.
- 李奎植, 趙南勳, 消費欲求의 變化와 婦人의 經濟活動과 出産行態, 가족계획연구원, 1978.
- 林鍾權, 人工妊娠中絶 實態에 관한 研究, 가족계획연구원, 1979.
- 金慕好, 孔楨子, 梁在謨, 初婚年齡의 相關要因과 이의 人口調節政策으로서의 意義, 가족계획연구원, 1982.
- 김홍숙, 지역사회 특성과 출산력 수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사회학적사학위논문, 연세대 학교, 1983.
- 金惠仙, 人工妊娠中絶과 避妊 受容行爲에 관한 調査研究,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4.
- 卞倍榮, 金正根, “우리나라 一部 農村地域의 出産力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分析”, 한국보건통계학회지, 제 6 권 제 1 호, 1981. 12.

(Abstract)

A Study on the Induced Abortion Behavior of Currently Married Women in Korea

Young Hie Oh*

An attempt had been made to obtain current information on induced abortion among currently married women aged 15 to 44. The source of data was 1985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Survey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in May 1985.

1. At the time of the survey, 53 percent of currently married women aged 15 to 44 had experienced induced abortion: 25.5 percent of the respondents who had experienced induced abortion only one time and another 27.6 percent more than two times.

2. The proportion of the women who had experienced induced abortion seemed to increase according to the advance in age. It seem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perience rate of induced abortion by academic career, and there was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rate of induced abortion and the age at first marriage. The experience rate of induced abortion by the number of living children was highest among those who had three children as 65.6 percent.

3. To analyze the effect of induced abortion on fertility, this study employ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statistical technique. Instead of index representing fertility level the number of living children served a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used in analysis included age, age at first marriage, education level, ideal number of children, religion, frequency of induced abortion, total number of pregnancies and participation in labor force. Standardized partial regression coefficient of induced abortion was no less than -0.61 . So, it can be concluded that induced abortion offered the great contribution on the birth control.

A consistant health education and efficient management of family planning program would be essential for effectiveness of contraceptive practice.

*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